

통계로 본 2023년~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

박미성 · 김성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4년 5월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3년 및 2024년 1분기(1~3월)의 거시지표, 출하와 물가 현황, 재고상황, 수출입 현황, 식품산업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가공·분석하여 정리함.

분석 결과, 1) 2023년의 식품제조업 생산활동(실질GDP) 및 가계 실질 식품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2)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상승하였으며, 3)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를 초과하였음. 한편, 4) 2024년 1분기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치를 기록함. 5)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5개년 1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상용직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음. 6) 2024년 2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1분기 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발효주업, 면류유사, 비알코올, 육류가공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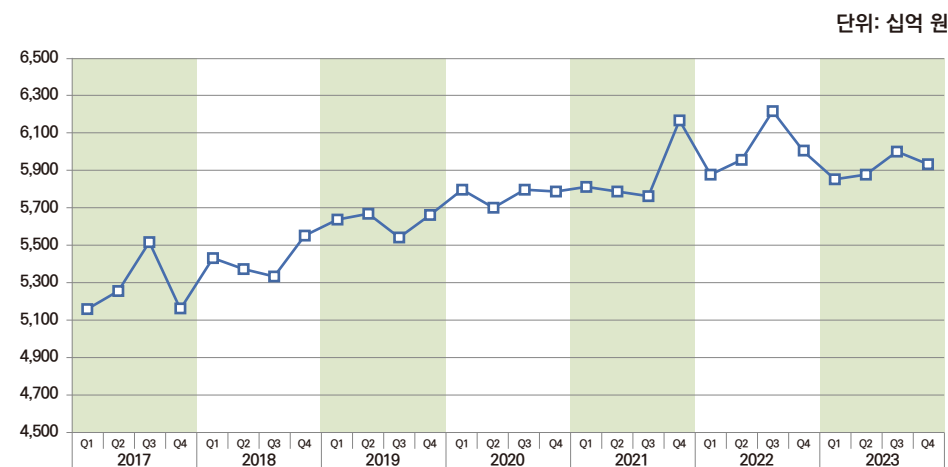
1. 2023년 식품산업 관련 거시지표

2023년 식품제조업 실질 GDP와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2022년 대비 감소

■ 2023년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23.7조 원으로, 2022년 대비 1.6% 감소하였음.

- 2023년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 증감율은 -1.7%로 제조업 전체 증감율(+0.9%)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일상 및 야외활동 증가로 식품제조업 관련 산업의 경기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원재료 가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아직 충분히 하락하지 못하였고, 고금리 기조 또한 장기화되면서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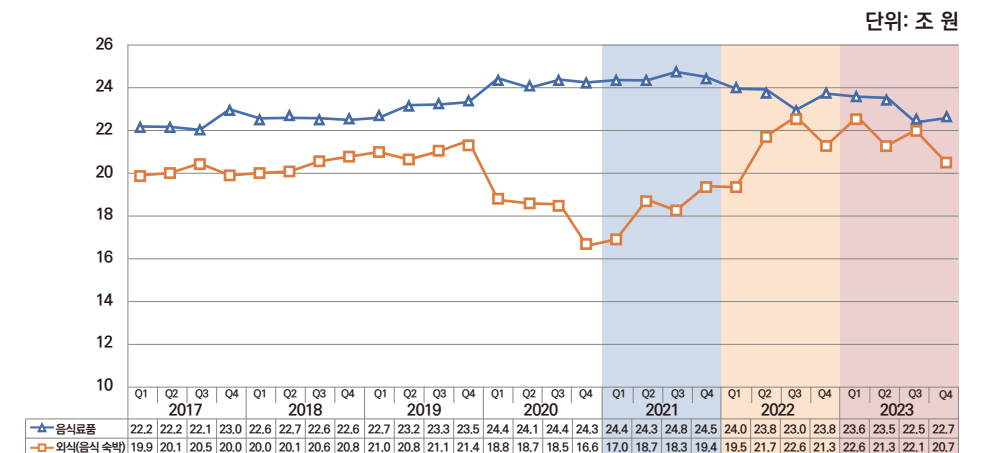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4 1/4, 2024.5.13., 경제활동별 GDP 및 GNI.

■ 2023년 가계의 실질 식품(비주류 음료 포함) 지출액은 92.3조 원으로 2022년 지출액(94.6조 원)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가계의 음식업 및 숙박업 실질 소비지출액은 86.8조 원으로 2022년(85.0조 원)보다 지출규모가 소폭(2.0%) 확대되었음.

- 가계의 명목 식품 지출액은 122.3조 원으로, 2022년 지출액(119.2조 원) 대비 2.6% 증가하였음. 즉, 식품품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량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외식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로 내식보다 상대적으로 지출 비용 조절이 가능한 혼밥 외식 선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음식료품 및 외식(음식/숙박)에 대한 분기별 실질가계소비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3 4/4, 2024.5.13.,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2023년 대미 환율은 1,300원대 수준으로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국내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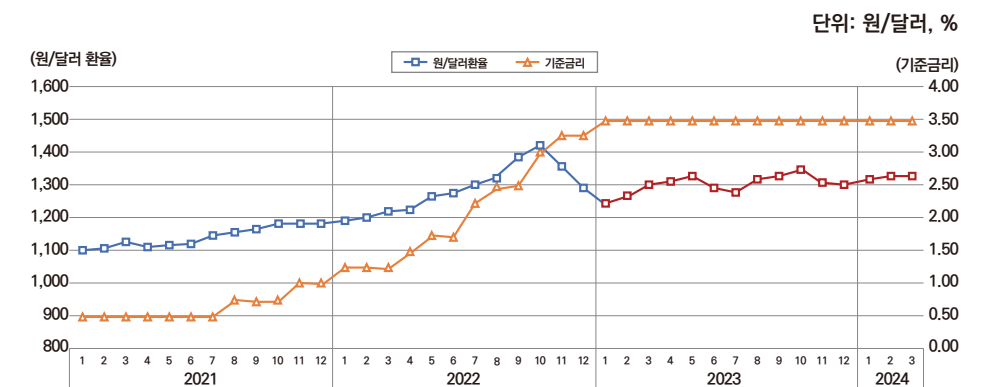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1,400원대를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점진적인 상승세로 전환함. 환율 상승은 식품의 수출 관점에서는 대체로 기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원재료 수입단가 측면에서는 원가경쟁력 하락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달러 환율: (2023년 1분기) 1,274.6 → (2분기) 1,315.0 → (3분기) 1,311.4 → (4분기) 1,321.7
→ (2024년 1분기) 1,328.7

- 국내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3.5%로 상승 후 지속적으로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금리: (2023년 1월) 3.25% → (2023년 2월~2024년 3월) 3.5%

월별 대미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40513, 2024.5.14.,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40513, 2024.5.14.,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2.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 및 물가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하락, 생산자물가는 절반 이상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상승

2023년 식품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은 1.7%로 2022년 증가율(14.7%)에 비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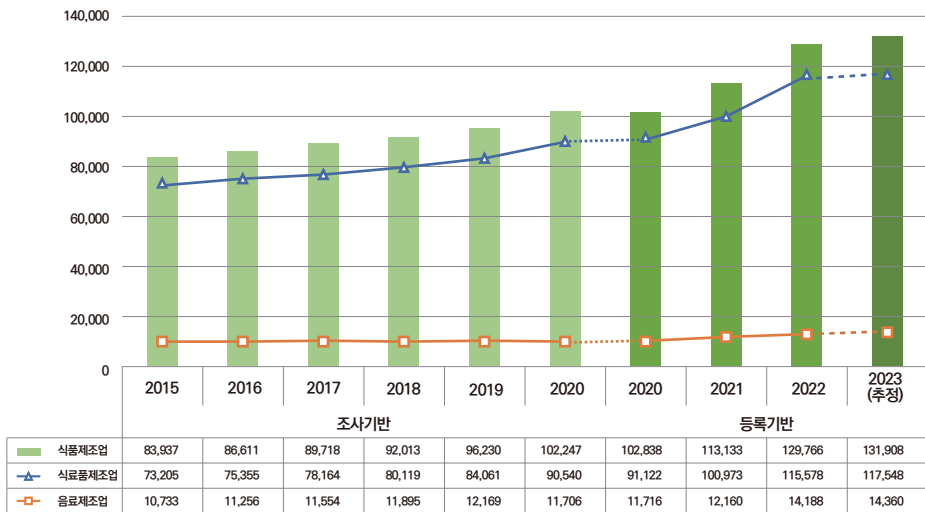
- 2023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전년보다 약 1.7% 증가한 131조 9,0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그중 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약 117조 5,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음료제조업의 출하액은 14조 3,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출하는 감소하였지만, 생산자물가 상승이 전체 출하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출하지수 전년대비 증감률: (식료품제조업) -4.5%, (음료제조업) -2.4%
-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증감률: (식료품제조업) 6.4%, (음료제조업) 3.7%

2015~2023년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단위: 십억 원



주: 2023년 수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 출하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2, 2024.5.13.,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24.3., 2024.5.17., 생산자물가지수.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전 분기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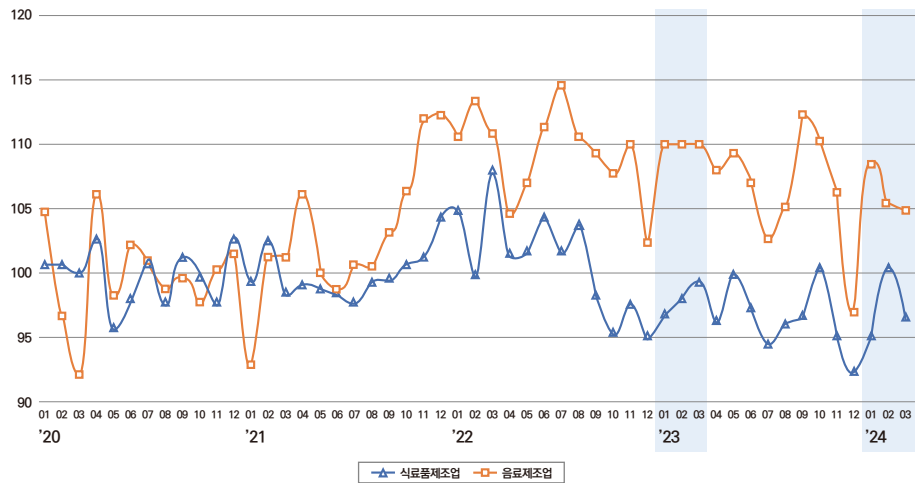
- 2024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평균 97.7로 전년 동기(98.3) 대비 0.6% 하락하였지만, 직전 분기(96.3)보다 출하량이 1.5% 증가함. 음료제조업 또한 1분기 출하지수가 평균 106.5로 전년 동기(110.2) 대비 -3.4% 하락하였으나, 직전 분기(104.7) 대비 출하량이 1.7% 증가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임.

- 월별 흐름을 보면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모두 2023년 12월에 출하가 크게 감소한 뒤 2024년 1분기에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남.

-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 (2024년 1월) 95.6, (2월) 100.8, (3월) 96.8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023년 1월) 108.6, (2월) 105.7, (3월) 105.2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 추이

단위: 2020년 = 100



주: 2024년 2~3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3, 2024.5.13.,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2023년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4%, 3.7% 상승하는 등 식품 도매물가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상승함.

- 국제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 분절화 및 전쟁의 여파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생산원가 상승을 압박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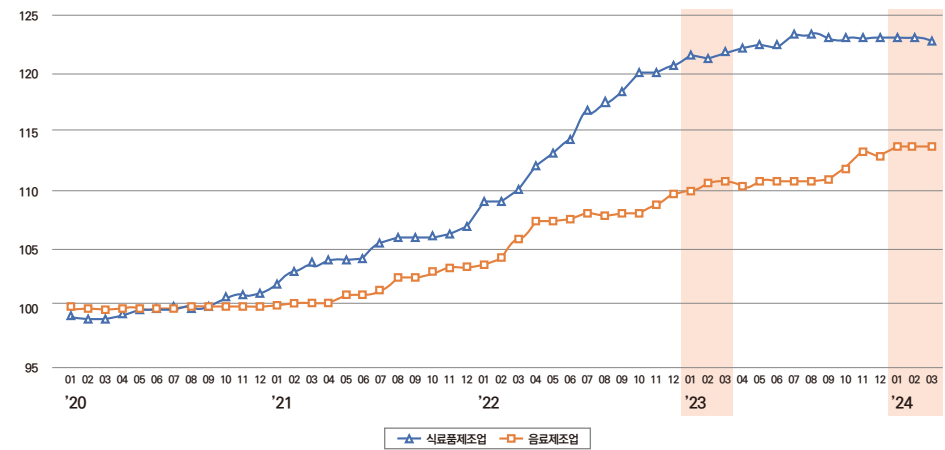
-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022년) 115.2 → (2023년) 122.6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022년) 107.3 → (2023년) 111.2

2024년 1분기(1~3월)에도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2.8% 상승하였으나, 지난 분기(2023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3.0으로, 전년 동기(121.6) 대비 1.1%의 증가율을 보이며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전 분기(123.2)보다는 소폭 하락함. 음료제조업의 1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3.8로, 전년 동기(110.5) 대비 3.0% 상승하였고, 직전 분기(112.8) 보다는 소폭 상회하고 있음.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

단위: 2020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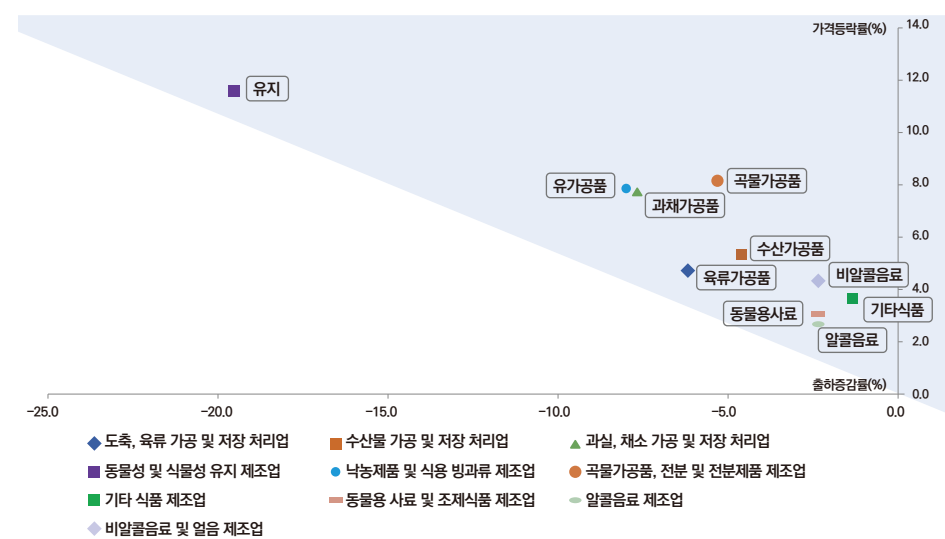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2024.3., 2024.5.17., 생산자물가지수.

2023년 출하는 모든 품목에서 감소세에 있었으며, 특히 출하 감소가 두드러진 업종은 식용 유지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못한 데 따른 출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업종별 출하 및 가격 변화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2, 2024.5.13.,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2024.3., 2024.5.17., 생산자물가지수.

2024년 1분기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출하 하락세는 지속되었으나, 기타식품과 육류가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가 증가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식용 유지(-27.3%), 낙농품(-7.8%), 사료 및 조제식품(-4.1%), 곡물가공 및 전분(-3.5%) 등의 순으로 출하 감소율이 높았고, 음료제조업의 경우 알콜음료 제조업 모두 각각 -7.3%, -0.5%로 출하가 감소함.
- 이는 달러화 강세에 따라 고환율·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대부분 식품제조업 업종에서 출하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 전년 대비 출하가 증가한 기타식품의 경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밀키트를 비롯한 저렴한 간편식 제품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업종의 출하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육류가공업의 경우 축산물 가격 안정화 지속과 함께 봄철 특수 등에 따른 출하 증가로 추정됨.

2024년 1분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식품제조업	-0.6	1.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0.7	-0.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0.8	1.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채가공)	-2.6	1.5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유지)	-27.3	-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낙농품)	-7.8	7.6
곡물가공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곡물가공및전분)	-3.5	-3.7
기타 식품 제조업(기타식품)	5.3	2.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료및조제식품)	-4.1	-4.3
음료제조업	-3.4	3.0
알콜음료 제조업(알콜음료)	-7.3	5.6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비알콜음료)	-0.5	0.7

주 1) 기타식품에는 떡·빵·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2, 2024.5.13.,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2024.3., 2024.5.17., 생산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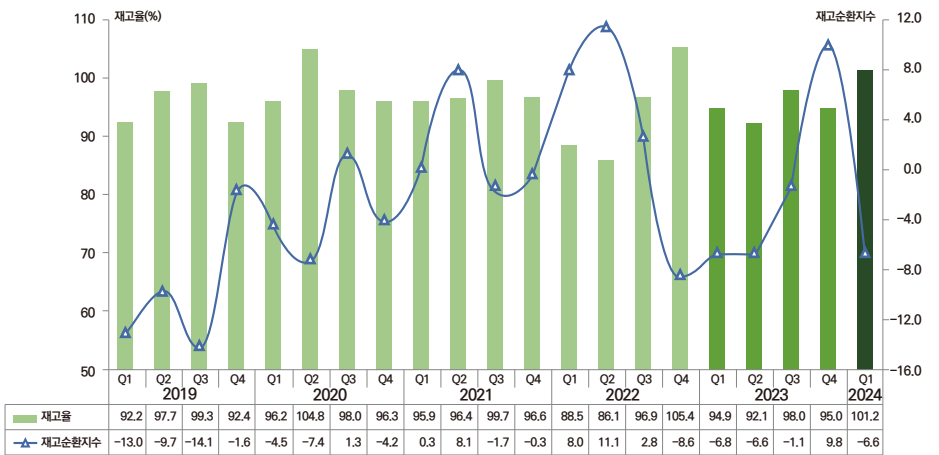
3. 식품제조업의 재고 현황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재고율 모두 100% 초과하였으나 식품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재고율 증가, 음료제조업은 재고율 감소

2023년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9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24년 1분기에는 재고율이 100%를 상회하며 재고량이 제품 출하량을 추월함.

- 2023년 재고율은 92.1~98.0% 수준으로 제품 출하량이 재고량보다 앞섰으나, 2024년 1분기의 재고율은 101.2%로 전년 동기대비 6.3%p 상승하며 재고량이 제품 출하량을 상회함. 이는 최근 6개년(2019~2023) 1분기 재고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0년 2분기(104.8%), 2022년 4분기(105.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음.
 - 2024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6.6으로 재고 증가율이 제품 출하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6.8)보다 소폭 하락함.
- 재고순환지수: (2023년 1분기) -6.8 → (2분기) -6.6 → (3분기) -1.1 → (4분기) 9.8 → (2024년 1분기) -6.6

식료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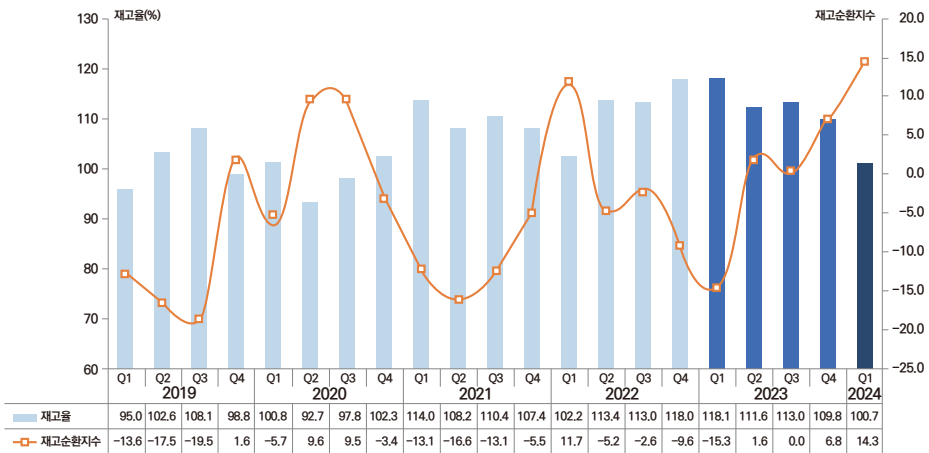


주: 2024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3., 2024.5.16.,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2023년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은 11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24년 1분기 들어 재고량이 100% 수준으로 하락함.

- 2023년 재고율은 109.8~118.1% 수준으로 제품 재고량이 출하량을 앞섰으나, 2024년 1분기의 재고율은 100.7%로 전년 동기대비 17.5%p 하락함. 이는 코로나19 이후 1분기 재고율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2024년 1분기 음료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14.3으로 전년 동기대비 193% 증가하며 제품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재고순환지수: (2023년 1분기) -15.3 → (2분기) 1.6 → (3분기) 0.0 → (4분기) 6.8 → (2024년 1분기) 14.3

음료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2024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3., 2024.5.16.,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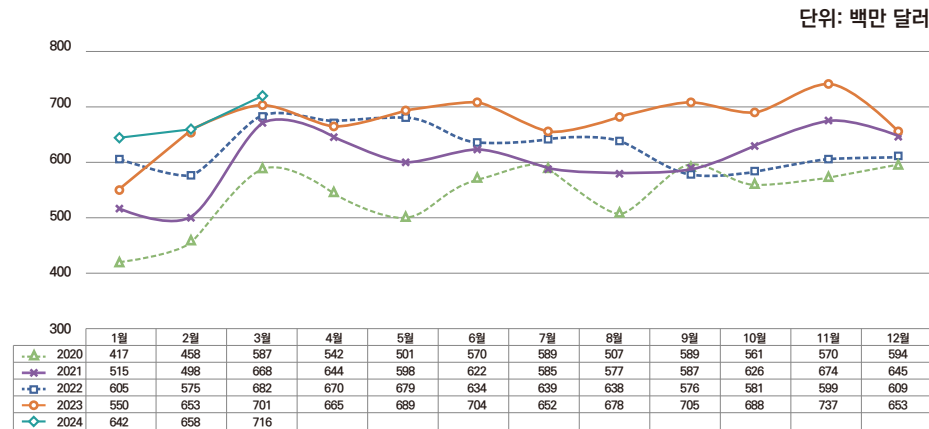
4.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2024년 1분기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 경신, 가공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

2024년 1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억 달러로, 전년 동기(19.0억 달러) 대비 5.9%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 품목군별로 곡물 및 곡분 조제품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으로 제분공업 생사품(16.5%), 채소 및 과실 조제품(10.8%), 식용 유지(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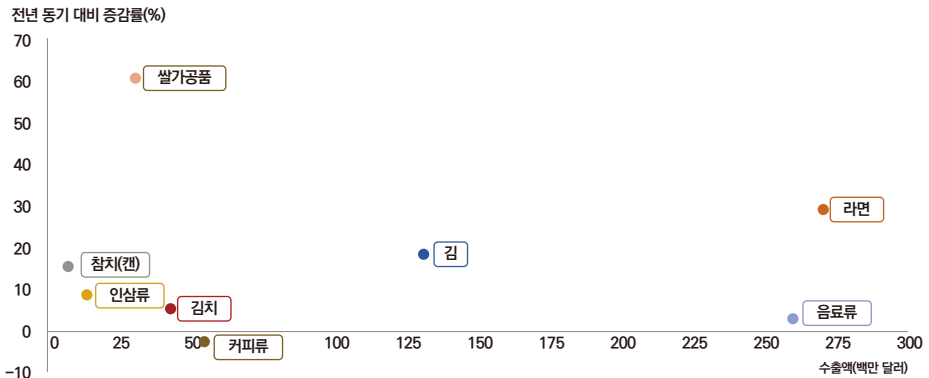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2024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이 큰 가공식품 품목은 쌀가공품(김밥 포함, 61.3%), 라면(30.0%), 김(18.9%), 참치캔(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류 등 K-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K-푸드의 인지도와 위상 또한 높아진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냉동김밥과 쌀가공식품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크게 상승함. 라면의 경우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EU의 수입 규제조치 완화가 수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분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4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은 3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함.

- 품목별로 라면,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시장별로 보면 미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024년 4월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실적

구분	2023년 1~4월	2024년 1~4월	증감률
농림축산식품	2,937.6	3,118.5	6.2
신선	515.2	487.0	-5.5
- 김치	53.6	57.3	6.8
- 포도	8.3	10.0	20.4
가공	2,422.4	2,631.5	8.6
- 라면	281.8	378.9	34.4
- 과자류	206.8	227.4	9.9
- 음료	182.6	211.7	15.9
- 쌀가공식품	61.9	88.0	42.1

주: 면세점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5.2.).

2024년 4월 기준 주요 시장별 농식품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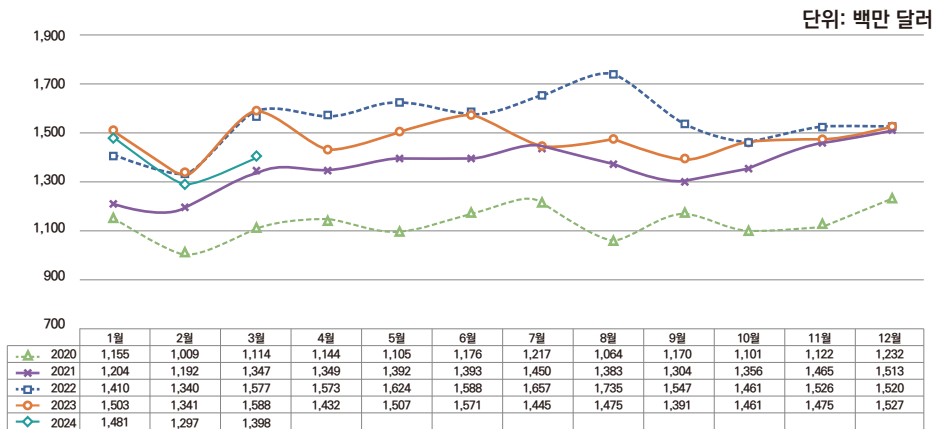
구분	2023년 1~4월	2024년 1~4월	증감률
미국	413.1	478.7	15.9
아세안	601.3	631.3	5.0
유럽(EU·영국)	173.4	230.8	33.1
중국	447.9	439.9	-1.8
일본	479.8	452.3	-5.7
GCC	100.3	86.7	-1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5.2.).

2024년 1분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 동기(44.3억 달러) 대비 5.8% 감소함.

-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낙농품(-30.7%), 식용 유지(-22.6%), 제분공업 생산품(-20.8%) 등의 수입 감소가 전반적인 수입액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두, 밀 등 국제곡물의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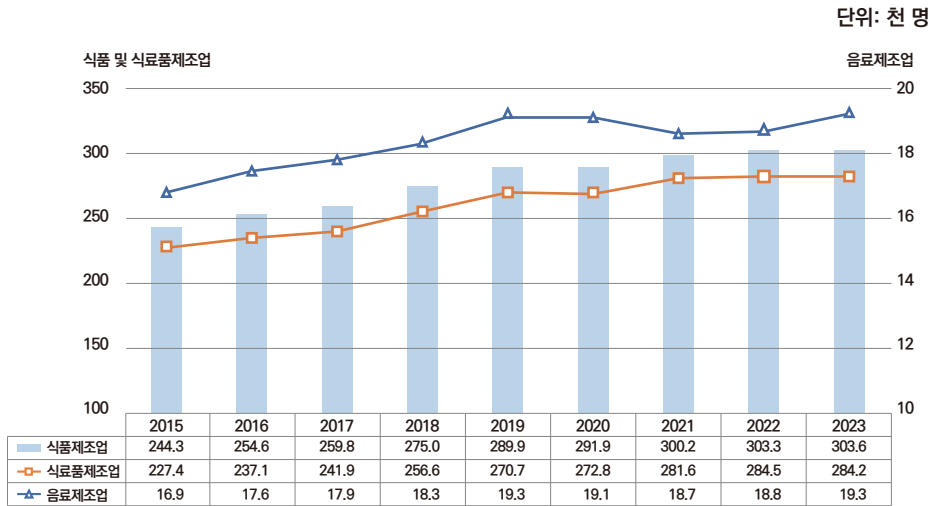
5. 식품산업 고용 동향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최근 5개년(2020~2024년) 1분기 중 최대치 기록

2023년 식품제조업의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30만 3,600명으로 집계됨.

- 2023년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는 음료제조업에서 견인하였음. 식료품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28만 4,200명으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음료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만 9,300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함.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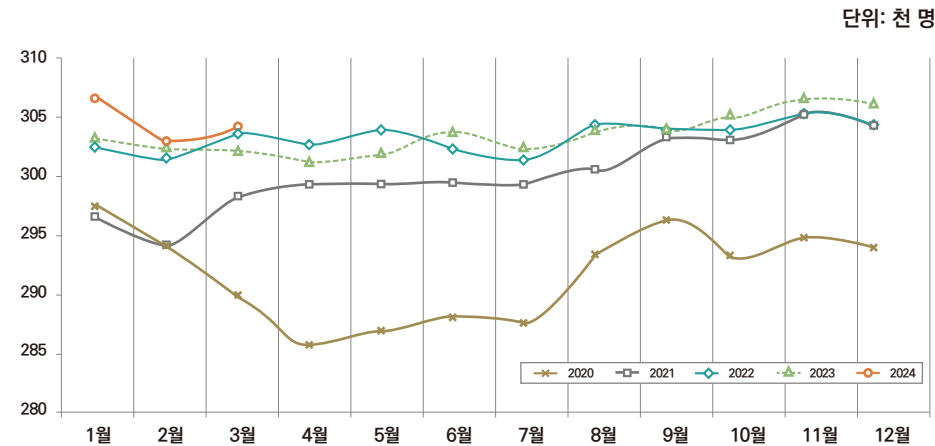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3., 2024.5.16., 산업/규모별 고용.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0만 4,5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2020~2024년)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함.

- 그중 식료품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26만 1,6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음료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9,5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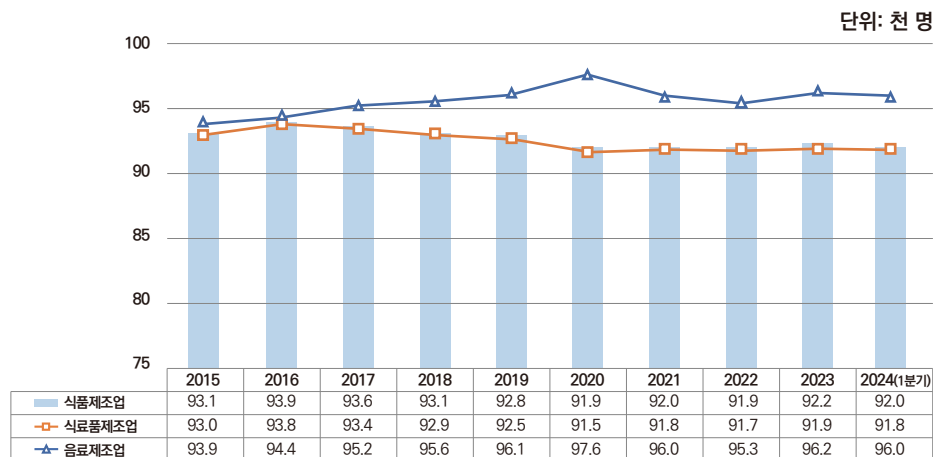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3., 2024.5.16., 산업/규모별 고용.

2024년 1분기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2.0%로 2023년 대비 0.2%p 하락함.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부문 모두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제조업 부문 상용근로자 비율은 91.8%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고, 음료제조업은 96.0%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함.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3., 2024.5.16., 산업/규모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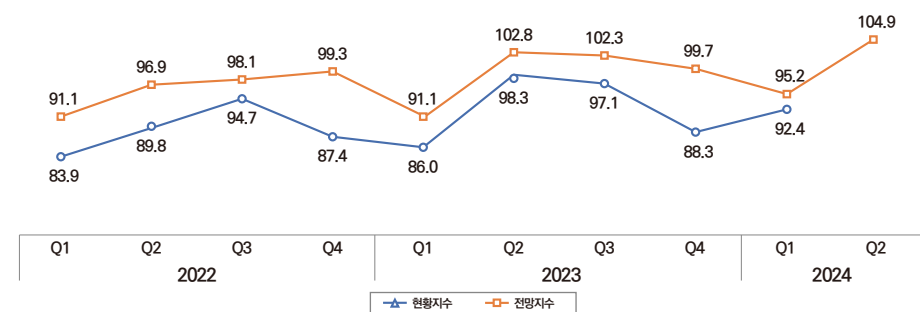
6. 식품제조업의 2분기 경기 전망

2024년 2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1분기 대비 호전 예상

■ 식품산업 경기동향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4.9로 전 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1분기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92.4로 직전 분기(88.3) 대비 지수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경기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많았음. 그럼에도 2분기 경기전반 전망지수는 104.9로 나타나 다음 분기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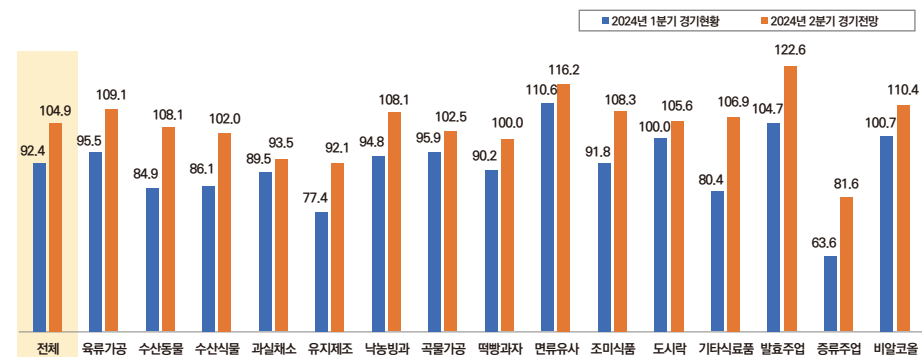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4., 2024.5.16., 식품산업 경기 현황·전망지수 종합.

- 2024년 1분기는 면류유사, 발효주입, 비알코올, 도시락 등 업종에서 수출판매 등 매출액 증가로 경기가 양호하게 진단됨. 그러나 증류주입, 유지제조, 기타식료품, 수산동물 등 대부분 업종의 경기는 등은 물가, 금리, 환율상승 등 경기불황 및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2분기는 환경적 요인(원재료 작황, 기후, 날씨) 및 사업 확장(신제품 출시, 판로개척) 등으로 인한 거래·소비 증가에 따라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호전 전망 업종 : 발효주입(122.6), 면류유사(116.2), 비알코올(110.4), 육류가공(109.1), 조미식품(108.3), 낙농빙과(108.1), 기타식료품(106.9), 도시락(105.5), 수산동물(103.1), 곡물가공(102.5)

식품제조업 업종별 2024년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주: 1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4., 2024.5.16.,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특히 발효주입 부문에서는 지난 2월부터 국산 발효주 및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세금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 적용으로 출고가가 인하되며 국내 발효주류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었음. 이와 같은 요인은 2분기 경기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18.1~23.2% 수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발효주류의 출고가 인하 효과는 33원~343원 수준으로 나타남.

· 주종별 기준판매비율(%): 청주(23.2), 약주(20.4), 과실주(21.3), 기타주류(18.1)

주종별 주요 제품의 출고가 인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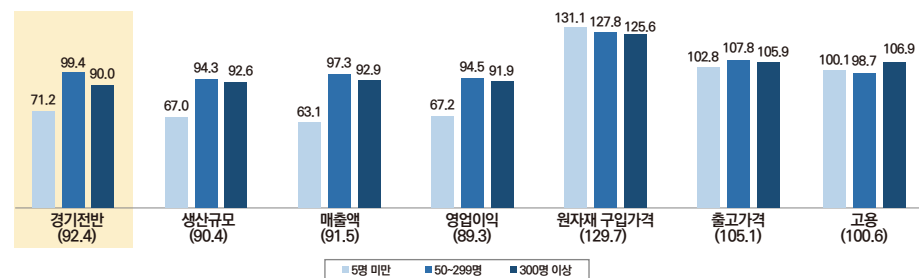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백화수복	청하	백세주	복분자주	필라이트후레쉬	
4,196원 (-242원, -5.8%)	1,669원 (-96원, -5.8%)	3,113원 (-146원, -4.7%)	6,500원 (-343원, -5.3%)	717원 (33원, -4.5%)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24.1.11.)

■ 규모별로 중·대규모 식품기업에서 생산규모 및 매출액 부문이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1분기 식품산업에서는 원자재 구입가격이 129.7로 모든 규모의 식품기업에서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131.1)에서 체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2분기에도 원자재 구입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나, 상승 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와 더불어 50인 이상 중규모 및 3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생산규모 및 매출액 부문이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5인 이상의 영세 식품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경기 호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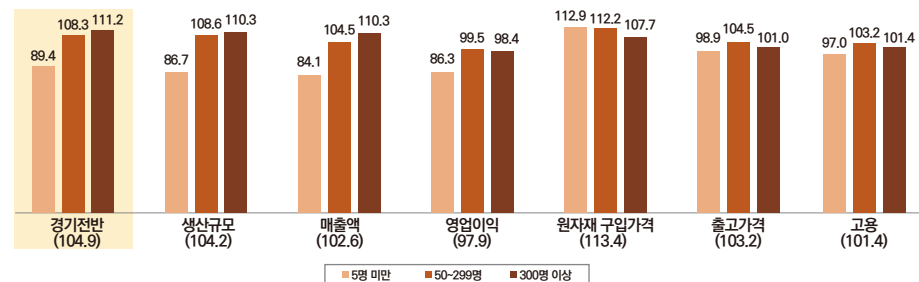
식품산업 규모별 2024년 1분기 경기 현황



주: 1분기 경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4., 2024.5.16.,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식품산업 규모별 2024년 2분기 경기 전망



주: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4., 2024.5.16.,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저자정보

- 박미성 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
- 김성휘 위촉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